

조선 士人의 만남과 절교

-李楨과 曹植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동욱*

<차례>

1. 서론
2. 남명과 구암의 균열
3. 남명과 퇴계의 반목
4. 남명과 구암의 절교
5. 절교의 후폭풍
6. 결론

<국문요약>

절교는 두 사람 간의 반목과 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과의 싸움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기도 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南冥 曹植과 龜巖 李楨의 절교다. 남명과 구암은 꽤 오랜 세월 道義로 사귀어 이어오다가 ‘하중악 후처 淫行事件’이 계기가 되어 절교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물론 이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남명과 구암의 절교는 사실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구암의 스승인 퇴계를 포함한 삼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퇴계의 의도 유무와 상관없이 남명과 구암의 반목에 그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두 사람의 단순한 절교로 끝날 듯 보였던 이 사건은 남명과 퇴계의 문도들 간의 저격과 해명으로 이어졌고, 남명과 구암 두 집안 후손들이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남명학과와 퇴계학파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어 복인과 남인

*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부교수

으로 나누어졌으니, 한 개인의 절교가 지성사의 분기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퇴계는 1570년, 구암은 1571년 남명은 1572년에 각각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도 끝이 났다. 절교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절교하지 않았다면, 구암이 남명과 퇴계학파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했었다면, 정인홍이 몰락하지 않고 남명학파가 퇴계학파와 대등하게 성장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봤을 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이 상상한 것처럼 풀렸다면 주자학 일색인 조선의 학문이 좀 더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확장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주제어: 절교, 소식, 이정, 이황, 남명학파, 퇴계학파, 하종악 후처 淫行事件

1. 서론

友道の 두 측면으로 友情과 絶交를 들 수 있다. 지금껏 우도에 대한 논의는 우정론에 치중되어 절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절교를 들여다보면 헤어짐의 정황뿐만 아니라 만남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다. 절교는 道義에 어긋났거나, 선조나 스승을 욕보였을 때, 정치·종교적 신념 차이 등으로 일어난다.¹⁾

절교는 쌍방 간 갈등과 책임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때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간관계는 단발적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상처가 만들어진 작은 균열들로 인해 서서히 붕괴된다. 절교의 이유는 두 사람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겠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것을 명료하게 알기는 어렵다. 단절과 끝을 선언하는 절교의 성격상 기록으로 이어지

1) 줄고, 「조선시대 絶交의 사회학」, 『동방한문학』65권, 동방한문학회, 2015.

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절교는 두 사람 간의 반목과 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과의 싸움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기도 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南冥 曹植과 龜巖 李楨의 절교다. 남명과 구암은 꽤 오랜 세월 道義로 사귀를 이어오다가 ‘하종악 후처 淫行事件’이 계기가 되어 절교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물론 이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남명과 구암의 절교는 사실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구암의 스승인 퇴계를 포함한 삼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퇴계의 의도 유무와 상관없이 남명과 구암의 반목에 그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두 사람의 단순한 절교로 끝날 듯 보였던 이 사건은 남명과 퇴계의 문도들 간의 저격과 해명으로 이어졌고, 남명과 구암 두 집안 후손들이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남명학과와 퇴계학과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졌으니, 한 개인의 절교가 지성사의 분기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명과 구암의 절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금 재확인하려 한다.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 이전에 있었을 붕괴의 조짐과 퇴계와의 관계가 미친 영향, 그리고 이 사건이 몰고 온 후폭풍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남명과 구암의 균열

남명과 구암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을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구암의 손자 李鯤變이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이 있었던 1568년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30년을 도의로 사귀를 나누었다²⁾”라고

2) 李鯤變, 『疑訛拙辨』: 一朝而遇淫婦事, 獨能三次反覆於三十年道義之交, 寧有是理哉.

한 것으로 보아, 대략 1530년 무렵을 만남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은 11살의 나이 차이에도 선후배 사이로 지냈다. 반면 구암과 퇴계는 남명과의 만남보다 훨씬 뒤인 1551년 만남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師弟 사이로 지냈다. 남명과 퇴계는 동갑이었으나 구암은 한 사람은 선배로, 다른 한 사람은 스승으로 대우한 것이다.

남명은 1558년(58세)에 金泓、李公亮、李楨、李希顔 등과 지리산을 유람하고 「遊頭流錄」을 남겼는데, 여기에 구암이 몇 차례 등장한다. 남명이 일행과 더불어 구암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며 음식을 대접받고, 구암이 일정 동안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것 없는 몇몇 장면에서 구암의 이름이 보인다.³⁾

남명은 1561년(61세)에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山天齋를 지었다. 당시 경주부윤으로 있던 구암은 남명에게 산천재에서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산천재 옆에 일곱 칸의 기와집을 지었지만 끝내 그 집에 살러 오지 않았다.⁴⁾ 단성현감 鄭復始와 진사 尹光前은 이러한 사실을 기롱하는 시를 지어 그 집 문에 붙이기도 했다. 구암은 1563년 임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산천재로 남명을 찾아와 자신이 미리 지어 놓았던 집과 구암을 기롱하기 위해 집에 붙여 놓은 시를 직접 눈으로 보고는 남명과 여생을 함께 할 뜻을 다시 피력했다.⁵⁾ 그렇지만 남명은 구암이 약속을 지키

3) 이정의 『구암집』에는 남명과 관련된 「期與曹南冥作話雙碧樓 曉征有感 樓在梁山」, 「寄南冥 南冥時在三嘉雷龍舍」, 「次南冥雙碧樓韻」 등 세 편의 시가 남아있고, 鄭斗가 지은 이정의 행장에 남명과 구암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撫遺」에도 남명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4) 「山川」, 『晉陽誌』: 丹城縣監鄭復始, 題李龜巖空舍曰, 「遠岫逶迤繞竹林, 滿山濃綠插雙尖. 主人不殺東華馬, 盡日溪雲過短簷. 蓋龜巖與先生, 約爲同棲於山天齋, 齋邊構七間瓦舍, 而竟不來故云爾; 鄭斗, 「行狀鄭斗」, 『龜巖集』: 與南冥先生, 道契甚厚. 南冥卜築于頭流德山洞, 先生亦占地其傍.

5) 『남명연보』, 癸亥 2월 3: 初先生有志山居, 龜巖約與之同. 辛酉龜巖尹東京, 使人請於先生, 占基作數間瓦屋, 終爲空舍, 鄭僉知復始, 尹上舍光前, 題詩屋柱而譏之. 至是年正月, 秩滿歸家, 二月來謁于山天齋, 因見其所構瓦屋及鄭尹二人所題, 還至先生所, 乃曰, 「眞樂在是, 浮榮可辭. 交戰而勝, 癯者肥矣. 自此游終老足矣」先生微哂曰, 「其然, 蓋喜其志而慮其終莫能就也」 居數日辭歸.

지 않으리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⁶⁾ 구암은 끝내 남명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남명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제자에게 남겼다. 이 시점에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명은 구암이 자신과 퇴계 사이를 오가며 교분을 쌓아가던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던 무게 추를 어느 순간 지나치게 퇴계쪽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관계에 대한 의심이 확증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는 1561년에서 1563년 사이에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다.

구암의 아버지 李湛(1487~1550)은 세상을 뜨고 10년 뒤 1560년에 추증이 이루어졌다. 구암은 아버지 이담의 신도비명을 남명에게 부탁했다. 정확히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560~61년 사이에 남명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완성된 글이 바로 「贈嘉善大夫 吏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李公神道碑銘 并序」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암이 남명에게는 撰文을, 퇴계에게는 寫字를 맡긴 일에서 비롯된다. 퇴계는 이전에도 남명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고 여러 번 드러낸 바 있었기에 퇴계에게 寫字를 부탁하는 일이 단순히 글씨를 얻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으리란 걸 구암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퇴계의 비판이 예견된 결과였음에도 구암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 뿐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퇴계는 신도비명을 寫字 해달라는 부탁을 수락하면서 종이를 보내달라고 구암에게 편지를 보냈다.⁷⁾ 남명이 쓴 신도비명을 구암으로부터 전해

6) 『남명집』 기유본 권3, 跋: 李初欲從先生入德山洞 作五六間瓦屋 或問 李是仕宦人 何遽爲入深計也 先生笑而不答 更問 屋成而久不來何也 先生乃曰 剛而決不來矣 吾亦料其不能來 渠欲相從 豈合拒之 有老友亦謂 我不知剛而不能休官入山 而約與同之 譏吾爲不明矣 剛而城府甚深 不喜人窺其心事 古語曰 未有隱而爲君子者 恐渠終不得爲君子也 이 글의 전반부는 『산해사우연원록』 권5 ‘李副提學 遺事’ 조에도 보인다.

7) 李滉, 「答李剛而 辛酉」, 『퇴계집』: 示喻先塋闕陰, 已得南冥之文, 則所需者寫字耳, 滉

받고 다시 구암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寫字 문제가 아닌 비문의 내용과 체제가 격식과 관례를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암이 이전 편지에서 이미 신도비명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 퇴계는 수정 요청에 남명의 양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물었고, 그것을 허락하면서 편지 하단에 수정한 내용을 넣어 보냈다.⁸⁾

남명이 지은 비문에 대해 퇴계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문맥이 통하지 않거나 표현의 어구가 부적절한 경우이고, 그 다음 격식과 관련하여 비문 중에서 稱號法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주로 지적했다.⁹⁾ 간단히 말하자면 글쓰기 방식에서 남명이 奇法을, 퇴계는 正法을 중시했으니 글쓰기에 대한 입각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다른 한편의 지적을 수용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퇴계도 잘 알고 있었는지 본인의 지적에 대한 남명의 반응을 궁금해 하면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남명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¹⁰⁾ 무엇보다 이에 대한 남명의 반응이 궁금한데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구암이 신도비문을 두 사람에게 撰文과 寫字를 각각 나누어 맡긴 사실은 남명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쾌할 것이 없다. 하지만 자신이 찬한 신도비문에 대해 퇴계가 구구절절 수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구암은 왜 퇴계에게 남명의 신도비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남명에게 전달했을까? 신천재 옆에서 함께 살겠다는 구암의 약속을 남명이 의심한 것은 이 신도비명 수정 사

安敢固辭，以孤令懇乎？但恐眼昏手澁，不稱令意耳。如必要見徵，須作界紙三兩件送來。老人善謬錯，不必於一紙內無誤書故也。

8) 李滉, 『答李剛而』, 『퇴계집』: 徵士之文, 蒼古峻偉, 甚可尚。但往往有不循格例處, 此雖山林之人不逐世好之意, 然凡刻銘, 所以傳後, 今若不言, 後之指議者, 將并及於操筆者曰, “何爲相徇爲此?” 況來喻責以下字云, 亦槌仲之意也耶。故敢以謬見, 妄有稟正云。...하략...

9) 장원철 「南冥의 碑誌文字에 대한 한 小考 —李滉의 神道碑銘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1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2.

10) 李滉, 『答李剛而』, 『퇴계집』: …… 曹槌中以其指點處, 謂之何耶? 若以爲不可改, 則只當從其意。蓋本槌中作也, 非滉作也。惟令照, 不宣。

건과 시기상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신도비명은 뒤에 남명의 문집에서 삭제되었다가 갑오본과 경술본 이후로 續集에 실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의아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남명집』에 실려 있는 이 신도비명은 퇴계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을 남명이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3. 남명과 퇴계의 반목

세 사람이 엮힌 이 절교의 틀에서 남명과 퇴계의 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장태는 퇴계의 평전에서 “퇴계와 남명 사이에는 학풍의 차이에 따라 서로 비판적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상호 이해와 존경의 마음을 잃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¹⁾”라고 했고, 허권수는 남명의 평전에서 “남명은 퇴계의 학문을 접한 후 퇴계를 마음의 벗으로 여겼다. 퇴계 또한 남명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그리워했다.”¹²⁾라고 했다. 남명과 퇴계의 평전 모두에서 두 사람이 상호 존경하는 사이였음을 밝히고 있다. 과연 그랬을까?

두 사람은 같은 영남 출신에 나이도 같았으니, 同道同庚의 인연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퇴계의 첫 번째 부인인 김해 허씨의 집안은 宜寧縣 嘉禮에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안동 권씨의 친정아버지 權碩은 安陰縣 迎勝村에 寓居하고 있었다. 이에 퇴계는 가례 마을이나 영승촌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 두 곳은 마침 남명이 있었던 삼가현과 인접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해부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가례 마을이나 영승촌을 다녀가는 길에 한 번쯤 들러 갈 만도 한데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다.¹³⁾ 만나려고 했으면 만날 수도 있었지만

11) 금장태, 『퇴계평전 - 인간의 길을 밝혀준 스승』, 지식과교양, 2012, 63면.

12) 허권수, 『조선의 유학자, 남명』, 뜻있는 도서출판, 2022, 158면.

13) 허권수, 『조선의 유학자, 남명』, 뜻있는 도서출판, 2022, 156면.

서로 만나려는 의지나 시도가 없었다고 보인다.

1553년 퇴계가 남명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그들의 인연은 시작된다. 앞선 연구에서는 퇴계가 왜 이 시기에 뜬금없이 출사를 종용하는 편지를 남명에게 보냈는지 선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해답은 퇴계와 구암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겠다. 허목이 지은 구암의 묘지명을 보면, 구암이 1543년(32세) 영천 군수로 있을 때 퇴계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온다.¹⁴⁾ 하지만 구암의 행장을 보면 “선생이 영천에 있었을 때 일찍이 퇴계와 더불어 도의의 계분이 있었다¹⁵⁾”라고 했다. 이때 서로 사제의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닐지라도 인간적인 교류는 시작된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로 발전된 것은 1552년 퇴계가 성균관 대사성이 되고 구암이 사성이 되어 한 달간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퇴계가 구암을 통해 남명의 존재를 강력하게 접했기 때문에 남명에게 출사를 종용하는 편지를 쓰는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에서 퇴계는 남명에게 儒逸로 천거 받아 6품직을 제수받았으나 출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퇴계는 남명에게 6품직을 내린 것이 우대라고 보았으며 이때야말로 출사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었다.¹⁶⁾ 그러나 남명은 관직에 오르는 길은 도적질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퇴계에게 撥雲散이 있다면 자신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응수했다.¹⁷⁾ 문면 그대로 보면 남명이 퇴계에게 세상에 출사하는 것에 대한 해안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지만, 실상은 출사에 대한 퇴계의 視座가 정당한 것인가도 함

14) 許穆, 「墓碣銘 并序 [許穆]」, 『龜巖集』: 二十五, 擢第壯元, 初授成均館典籍, 後六年, 由禮曹正郎, 出守榮川, 時從弟子列, 初見退陶李先生於陶山.

15) 鄭斗, 「行狀」, 『龜巖集』: 先生在榮川時, 曾與退溪有道義之契.

16) 李滉, 「與曹樾仲 植○癸丑」, 『퇴계집』: 滉再拜. 頃者, 銓曹薦用遺逸之士, 聖上樂得賢材而任用之, 特命超敍六品之官, 此實吾東方古所罕有之盛舉也. 滉私竊以爲不仕無義, 君臣大倫, 烏可廢也. …후략…

17) 曹植, 「答退溪書 退溪姓李名滉字景浩」, 『남명집』: ……只以構取虛名, 厚誣一世, 以誤聖明. 盜人之物, 猶謂之盜, 況盜天之物乎? ……公有燻犀之明, 而植有戴盆之嘆, 猶無路承教於懿文之地, 更有眸病, 眊不能視物者有年. 明公寧有撥雲散以開眼耶……

게 묻는 말이었다. 그러자 퇴계는 남명에게 당귀도 구하지 못하는 터에 어떻게 발운산을 구해 주겠느냐고 대답한다. 여기서 當歸는 약재 이름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¹⁸⁾ 퇴계가 不仕無義와 當歸를 말했다면, 남명은 盜天之物과 撥雲散을 말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편지를 품격 있는 농담이나 뼈 있는 풍자 정도로 해석하지만, 실상은 出處에 대한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퇴계언행록』을 보면 1553년 자신을 찾아온 洪仁祐에게 퇴계는 남명의 답장을 보여주었다. 홍인우가 그것을 보고 氣의 영역에서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퇴계는 남명이 학문이 깊지 못해 하는 일에 진취하지 못한다고 했다.¹⁹⁾

남명은 先儒들의 출처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몽주, 김종직, 이언적 등을 들고 있다. 남명이 정몽주에 대해 비판하자²⁰⁾, 남명의 제자이자 퇴계의 제자인 鄭球가 같은 내용으로 퇴계에게 질문했다.²¹⁾ 퇴계는 병통이라고 표현하면서 정구가 남명의 의견에 동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²²⁾ 이외에도 남명이 김종직, 이언적 등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 것에 반해 퇴계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²³⁾ 이처럼 인물들의 출처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

18) 李滉, 「答曹樾仲」, 『퇴계집』: ……示索撥雲散, 敢不欲勉, 但僕自索當歸而不能得, 何能爲公謀撥雲耶……

19) 『退溪先生言行錄』: 癸丑七月, 往拜先生, 先生以曹樾仲答書示余, 余曰, “此人歎慕有年, 以爲學就德成, 今看此文字, 恐不免有氣上語” 先生曰, “然, 人多謂狷介高尚底人, 非學文上恁地做工夫, 故無進就事業”

20) 曹植, □言行總錄, 『남명별집』: □先生嘗論圃隱出處曰: 禍昌之是辛是王, 不容辨說, 其時, 辛屯穢亂朝家, 崔瑩侵犯上國, 非君子仕宦時, 而猶不去, 是甚可疑.

21) 李滉, 「答鄭道可述問目」, 『퇴계집』: 南冥曹先生, 嘗以鄭圃隱出處爲疑. 鄙意鄭圃隱一死, 頗可笑. 爲恭愍朝大臣三十年, 於不可則止之道, 已爲可愧. 又事辛禍父子, 謂以辛爲王出歟, 則他日放出, 已亦預焉, 何也? 十年服事, 一朝放殺, 是可乎? 如非王出, 則呂政之立, 嬴氏已亡, 而乃尙無恙, 又從而食其祿, 如是而有後日之死, 深所未曉.

22) 李滉, □答鄭道可述問目, 『퇴계집』: 程子曰: 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有過, 以圃隱之精忠大節, 可謂經緯天地, 棟梁宇宙. 而世之好議論, 喜攻發, 不樂成人之美者, 曉曉不已. 滉每欲掩耳而不聞, 不意君亦有此病也.

견을 달리했다.

남명은 1555년 丹城縣監을 제수받자 사직하며 「乙卯辭職疏」를 올린다. 이 상소문에서 문정왕후를 과부에, 명종을 孤嗣에 각각 빗댔다. 여기에 대해서 퇴계는 말이 지나쳐서 임금이 보고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했다.²⁴⁾ 취지는 동의하지만 표현은 과하다는 말이다. 퇴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명을 奇士라고 말하며 학문의 수준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²⁵⁾ 퇴계는 남명이 현실 정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야에서 임금을 높은 수위로 저격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퇴계의 남명 비판은 出處나 현실 정치 참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남명이 1558년에 「遊頭流錄」을 쓰자, 퇴계가 1560년 그것을 읽고 「書曹南冥遊頭流錄後」를 썼다.²⁶⁾ 그전에는 퇴계와 퇴계 문인들 간의 사적인 비판에서 그쳤다면, 이 글을 시작으로 남명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된 셈이다. 퇴계는 전반부에서 글을 칭찬하는 듯하다가, 후반부에서 “기이함을 좋아해서 중도를 유지하기 어렵다(尙奇好異 難要以中道)”며 핵심적인 비판으로 마무리했다. 이 글이 발표된 시점은 중심으로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남명과 구암의 관계에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 것도 우연으로 보기는 힘들다.

23) 최영성, 「退溪의 南冥 비판과 그 의미」, 『퇴계학논집』8권,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에 상세히 나오고 있어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24) 『退溪先生言行錄』: 凡章疏, 固貴於直言不避. 然須要委曲宛轉, 使意直而語無過激不恭之病. 然後下不失臣子之禮, 上不拂君上之意. 南冥之疏, 固今世所難得. 然言語過當, 近於訕訕, 宜人主見而怒也.

25) 『退溪先生言行錄』: 南冥雖以理學自負, 然直是奇士, 其議論識見, 每以新奇爲高, 務爲驚世之論, 是豈眞知道理者哉.

26) 李滉, 「書曹南冥遊頭流錄後」, 『退溪集』: 曹南冥遊頭流錄, 觀其遊歷探討之外, 隨事寓意, 多感憤激昂之辭, 使人凜凜猶可想見其爲人. 其曰一曝之無益, 曰向上趨下只在一舉足之間, 皆至論也. 而所謂明哲之幸不幸等語, 眞可以發千古英雄之歎, 而泣鬼神於冥冥中矣. 或以其尙奇好異, 難要以中道爲疑者. 噫, 自古山林之士, 類多如此, 不如此, 不足以爲南冥矣. 若其節拍氣味所從來, 有些子不可知處, 斯則後之人必有能辨之者.

이미 퇴계는 1558년 제자 黃俊良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명에 대해 “남명의 사람됨에 대해 논한 것이 그 실상에 바로 적중하였습니다. 의리에 투철하지 못함을 들자면, 그는 노장에 빠진 병통이 많아 우리 학문에 공을 쏟는 것이 당연히 심오하지 못하니, 어찌 투철하지 못함을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요컨대 마땅히 장점을 취해야 할 뿐입니다.”²⁷⁾라고 했다. 여기서 ‘老莊爲崇’라는 말은 매우 심각한 비판으로 남명을 정통 유학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우평은 이 편지를 얻어 본 뒤 퇴계에게 강하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 글은 김우평의 문집에는 수록되지 못하고 『성호사설』에 실려 있다. 거기에서 “……지금 선생께서 거리낌없이 꾸짖음이 심하여는 異端에 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시니, 아마도 선생의 크신 도량에 손상될 듯합니다. 심한 의혹을 잘 풀어 주시길 원합니다.(今先生肆然詆斥, 至比於異端, 恐有損於先生大度, 願賜開釋, 以解滋甚之惑)”라고 하자, 이에 대해 퇴계는 자신은 남명을 배척한 적이 없다고 답신했다. 하지만 석연한 해명은 아니었다. 남명은 퇴계의 ‘老莊爲崇’라는 평가에 대해 “퇴계가 나를 노장이라 일렀던가. 필시 내가 어린 나이로 학문을 하지 않았을 때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남에게 거만하게 굴었던 일을 본 모양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²⁸⁾ 그러나 이 기록은 매우 근세의 것이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어쨌든 퇴계의 연이은 비판에도 남명은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후일 정인홍은 ‘老莊爲崇’에 대해 「晦退辨斥疏」에서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남명과 퇴계는 학문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남명이 許衡을 따라서 踐履之學을 중시했다면, 퇴계는 주자를 따라서 義理之學을 높였다. 1561년 퇴계의 제자 琴蘭秀가 남명을 방문했을 때, 남명은 퇴계와 고봉과의 논변을 언급하며 의미없는 소모적 논쟁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금난수

27) 李滉, 「答黃仲舉(戊午)」, 『退溪集』: 其所論曹樾仲之爲人, 亦正中其實矣. 其於義理未透, 此等人多是老莊爲崇, 用工於吾學, 例不深邃, 何怪其未透耶? 要當取所長耳.

28) 曹庸相, 「書後」, 『弦齋集』: “曰: …… 退溪以我謂老莊耶. 必見吾年少不學時, 輕世傲物之事也.” ○ 조용상(1870~1930)은 남명의 후손이다.

는 남명의 의견을 퇴계에게 전달했고 1562년 고봉과의 논쟁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 퇴계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암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남명이 ‘欺世盜名’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이러한 비판을 藥石으로 삼자고 말했다²⁹⁾, 두 번째 편지 또한 처음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³⁰⁾ 퇴계는 남명의 비판에 대해서 맞대응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구암에게 전달함으로써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퇴계는 구암에게 140여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1561년(24통)과 1562년(26통)에 다량 집중되어 있다. 편지의 내용은 매우 사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두 사람이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³¹⁾ 남명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다.

근래에 보니 학자들이 손으로는 灑掃하는 범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이름만 도적질하고 이로써 사람을 속이려 하다가 도리어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미치게 합니다. 선생(퇴계) 같은 長老께서 이것을 꾸지람하여 말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 선생이라면 윗자리에 올라 있으므로 우리러 보는 이가 참으로 많을 터이니, 십분 억제하고 規戒하심이 어떨까 합니다.³²⁾

29) 李滉, 「答李剛而」, 『退溪集』: 近有人自南冥所來言, 湖南奇斯文, 曾與滉論四端七情書札往復事, 南冥極以爲非, 至以欺世盜名目之云. 此言眞藥石, 此名甚可懼. 此是吾輩人中, 乃有此等語, 況他人耶. 此意令公亦不可不知, 故并白之, 更望傾採, 至懇至懇.

30) 李滉, 「答李剛而」, 『退溪集』: 吾輩日講聖賢之言, 而躬行不逮, 其謂之欺世, 不亦可乎. 雖自無盜名之心, 而世或謾以此名歸之, 其謂之盜名, 亦不可謂盡無也. 然則南冥之言, 豈獨奇明彥所當警懼. 實吾輩皆當策勵終身, 庶乎其可免矣.

31) 황위주,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영남학』 47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이 논문에 두 사람 사이의 서신 교환에 대해서 상세히 나온다.

32) 조식, 「與退溪書」, 『南冥集』: …… 近見, 學者手不知灑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反爲人所中傷, 害及他人. 豈先生長老, 無有以呵止之故耶? …… 若先生則身到上面, 固多瞻仰. 十分抑規之, 如何? 伏惟量察. ……

퇴계의 저격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던 남명은 1561년부터 서서히 공세를 취한다. 퇴계와 남명 사이에는 평생 몇 통의 편지만이 남아 있다. 퇴계는 남명에게 3통의 편지를, 남명은 퇴계에게 2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위의 편지는 1564년에 쓴 것이다. 1553년 퇴계의 첫 편지에 남명이 답장을 하고 10년이 지난 뒤 갑자기 퇴계에게 먼저 편지를 쓴 것이다.灑掃와 天理를 제기함으로써 앞선 고봉과의 논변을 비판했던 연장 선상에 있으면서 좀 더 수위가 높아졌고 공세는 강화되었다.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空理에만 빠져 있다는 비판은 자칫 퇴계와 퇴계 문하의 공부 방법 전부를 싸잡아 지적하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명은 문인인 德溪 吳健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도 사풍의 그릇된 변화에 퇴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³³⁾

퇴계가 이덕홍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를 통해 남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충고를 받아들여 자신과 문인들이 조심하는 계기가 되자는 다짐의 말도 있었지만, 사실상 남명의 말에 병통[病]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³⁴⁾ 鄭惟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남명의 비판을 藥石으로 삼자고 했으니,³⁵⁾ 藥石과 病이란 단어에서 퇴계의 복잡한 감정 충동이 읽힌다. 남명의 말을 약석으로 삼긴 하겠지만 그의 말에 지나친 병통이 있다

33) 조식, □與吳子強書, 『남명집』: 熟看時尚, 癩成麟植驢鞞. 渾世皆然, 已急於惑世誣民, 雖有大賢, 已不可救矣. 此實斯文宗匠者, 專主上達, 不究下學, 以成難救之習. 曾與之往復論難, 而不肯回頭, 公今不可不知此弊之難收矣; 「與吳御史書」, □『남명집』: 年少談理, 奄然當之, 若爲貴宗匠然者. 名旣忽重, 人皆保之, 逃無所往, 如追放豚, 衆皆逐之, 畢竟置身於何地耶. 性與天道, 孔門所罕言. 和靜有說, 程先生止以莫要輕說. 君不察時士耶. 手不知灑掃之節, 而口談天上之理, 夷考其行, 則反不如無知之人, 此必有人譏無疑矣. 當此時, 果儼然冒居賢者之位, 以作虛僞之首耶.

34) 이황, 「答李宏仲」, 『退溪集』: 近得曹南冥書云, 近見學者, 手不知灑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反爲人所中傷, 而害及他人, 豈非先生長者無以訶止之故耶. 請十分抑規之, 此說雖有病, 吾輩於此, 不可不痛自警飭, 故奉告之耳; 「答李宏仲」, 『退溪集』: 所諭學者盜名之罪, 出於有爲人之心, 此說甚當. 然學而欲盜名, 亦不足謂之學者矣. 南冥不分其人之心誠僞, 而槩欲訶止之, 此雖憤世疾邪之心, 其言亦有病耳.

35) 이황, 「與鄭子中」, 『退溪集』: 適得南冥書槌仲書云. …… 故南冥之言, 眞可謂爲吾輩藥石之言, 自今請各更加策勵, 以反躬實踐.

고 판단했다. 퇴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명에게 직접 답장을 하여 사변적 논쟁을 중단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적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불쾌한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³⁶⁾

남명과 퇴계는 出處, 학문, 문장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생각이 서로 달랐다. 애초부터 다른 길을 걷고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 구암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구암은 갈등의 봉합과 증폭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남명이 구암과의 사이에서 생긴 갈등과 실망으로 퇴계에게 공세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퇴계와의 결교 좁힐 수 없는 간극으로 생긴 분노를 대신 구암에게 표출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남명과 구암의 교분에 퇴계의 영향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4. 남명과 구암의 절교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은 1568년 6월경 발생했다. 하종악의 후처 이씨가 과부로 있으면서 淫行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들은 경상감사 朴啓賢이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하여 후처 이씨와 奸夫로 지목된 元石、河莫丁 및 중간에서 이를 주선하였다는 行媒婢子, 그리고 후처 이씨 좌우의 侍婢 등 10여명을 혐의자로 잡아 가두었다.³⁷⁾ 이 일의 처리를 두고 남명과 구암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남명은 구암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퇴계는 구암에게 절교를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남명과 구암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결국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이 트리거(TRIGGER)가 되어 폭발한 것이다.

36) 이황, 「答曹樾仲」, 『退溪集』: 若以犯世患之故而一切訶止之, 是違帝命錫類之意, 絕天下向道之路, 吾之得罪於天與聖門已甚, 何暇憂人之欺且盜乎. ……抑不知公所指者, 是何等人耶. 其人雖不正當, 若其病只如前所云者, 則其不當訶抑如彼. 或不幸而真有欺盜之心者, 吾輩得免於彼所訶抑, 幸矣. 又豈敢強作氣勢, 反加訶抑於彼耶.

37) 정만조,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한국학논총』2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80면.

남명이 吳健과 鄭琢에게 보낸 편지인 「與子強子精書」에는 정인홍이 부연 설명한 글이 첨부되어 있는데, 저간의 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泗川에 있던 李楨은 경상 감사 朴啓賢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李希顔(1504~1554) 후처의 음행 사건을 제보한다. 박계현은 현지 사정에 어두워 梁喜(1515~1580)에게 위임하였고, 그는 사위인 정인홍에게 그 일의 전말을 알아보게 했는데 이 일이 곧 남명에게 전해진 것이다.

남명은 평소 이희안 후처의 婦道를 높이 평가해 왔던 터라 이것을 무고라 여기고 그 배후로 구암을 지목한다. 구암이 하종악 후처의 음행을 비호하기 위해 이희안 후처 문제를 거론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하종악 후처의 음행이 경상 감사에까지 알려지고 음행의 관계자들이 체포된다. 남명의 발언이 곧 음부옥의 증거가 돼버렸으니 이 일로 인해 하종악 후처의 음행을 고발한 사람이 남명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박계현의 후임자인 정유길이 부임하면서 음부옥 관련자들이 석방되었고, 남명은 그들의 복수를 피해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남명은 음부옥이 이렇게 마무리된 배후에도 구암이 있다고 생각했다. 구암이 추관인 최응룡과 감사인 정유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救命을 청하여 결국 성사시켰다고 본 것이다. 남명은 구암이 이렇게 남몰래 구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신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내고 세 번이나 말을 바꾸었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구암은 소문이 퍼진 지 오래되어 반드시 계집종과 奸夫를 죽여야 한다는 뜻을 감사와 추관에게 전했다고 했었다. 그런데 추관 최응룡이 남명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실 여부를 물어보니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구암이 음부옥 관련자들을 힘써 伸救했다는 내용을 전해 듣게 된 것이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남명을 찾아뵙기엔 너무 늦은 듯하여 면목이 없었다 사과하면서, 감사와 추관에게 사죄한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뒤로는 宋寅에게 사람을 보내고 鄭惟吉에게 호소하여 음부옥에 관련된 사람들을 풀어주게 했다. 비단 편지뿐만은 아니었다.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에 대해서 구암은 처음에는 그 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가 마

지막에는 허위의 일이라며(初曰昧昧 中曰果然 終曰虛事)³⁸⁾ 세 차례나 입장을 반복했다.

남명은 음부옥 사건 자체도 문제이거나, 그것에 대처하는 구암의 태도에 더 실망했다. 그는 구암이 보낸 두 통의 편지와 세 차례의 입장 변화를 통해, 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관계도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사안을 통해 상대에게 의심과 실망을 느끼는 순간 지나갔던 일들마저 온갖 상상과 뒤엉키면서 새로운 판단과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명은 그러면서 구암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일찍이 尹椿年에게 아첨했다가, 뒤에 李樑을 섬겼으며, 다시 벼을 殃禍 속으로 빠뜨리고 음부에게 뇌물을 받아 죽은 친구를 저버렸으니, 의리상 끊어버려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사절했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³⁹⁾

구암이 이회안 처의 淫行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남명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 거기에 대응하고자 남명이 꺼낸 하종악 후처의 음행 문제에서 구암이 이중적인 태도로 자신을 기만하여 獄事를 무력화시켰다는 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것이다. 윤춘년에게 아첨하고 이량을 섬겼던 인물인데다 자신같이 오래된 벼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구암의 인격을 폄하했다. 게다가 淫婦에게 뇌물을 받아 비호하는 행동을 했으니 그와는 절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남명과 구암은 하종악 후처에 관한 일을 알고 있었다. 남명이 10년 전에 음부의 일을 분개하면서 중간에 사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계집종을 왜 강물에 던지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구암이 대답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터지자 구암은 감사와

38) 조식, 『與子強子精書』, 『남명집』

39) 조식, 『與子強子精書』, 『남명집』: … 曾詔彥久-尹椿年字-, 後事公舉-李樑字-, 更陷友人於禍中, 受賂於淫婦, 背棄亡友, 義所當絕也. 吾已謝絕, 愈意如何? …

추관에게 자신이 하종약 후처와 한 집안 사람이라 상세히 일의 정황을 알고 있는데 남명이 소문을 잘못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⁴⁰⁾

1568년 「與子強子精書」가 공개되고 그 이듬해 1569년 문무 56인이 가노들을 거느리고 북을 울리면서 진주 수곡에 있는 음부 이씨의 집과 奸夫의 집을 훼손하고 향리에서 쫓아내는 집단 행동을 감행했다. 이를 毀家黜鄉이라 한다. 회가출향 직후 감사 정유길은 가담자 전부를 연행하여 그 중 주동자 7인을 잡아 가두었다.⁴¹⁾

.....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마다 서로 전하여 떠들어 대니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曹君은 세상에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람됨이 곳곳하여 속세를 초월하고 결백하여 세상을 벗어나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엿어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저 향리의 한 부인의 실행 여부가 그 무슨 더럽혀질 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 어쩌다 그런 일을 말하면 마땅히 귀를 씻고서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 높은 절개를 스스로 깎아 내리며 남들과 시비를 다투는 데 마음을 모두 허비하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여태껏 그만두지 않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은 불행하게도 이 변을 당하였지만, 또한 구태여 변명할 것도 없고 또한 슬퍼할 것도 없으며 또한 예전처럼 교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돌이켜 살피면서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고 허리를 꼴끗하게 세워 仁과 禮를 마음에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舜 임금과 같은 근심을 안고서 正直과 大義로 氣를 함양하며, 曾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서 초연하게 그 말을 듣지 않은 듯이 하고 말끔하게 그 일에 관련되지 않은 듯이 하며 까마득히 모르는 듯이 대처한다면,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참다운 즐거움이 저절로 무궁할 것이라 생각하니, 다른 것이야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만일 교분을 온전히 하

40) 조식, 「與子強子精書」

41) 정만조,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87면.

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을 밝히거나 합해지기를 구하는 뜻이 있으면, 나는 그대가 굴욕만 더 심하게 받게 되고 결국은 교분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2)

이 편지는 1570년 퇴계가 구암에게 보낸 것으로, 퇴계가 세상을 떠난 후 1600년에 『퇴계집』이 간행되었을 때 세상에 공개되었다. 남명의 비난을 받던 구암에게 퇴계는 이런 답장을 보냈다. 먼저 여인 한 명의 失行 문제로 시비를 따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남명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변명하거나 슬퍼할 것도 없이 관계 회복을 기대치 말라고 했다. 스승의 입장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런 답장을 했을까? 퇴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더이상 연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구암이 남명같은 이와 교분을 지속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완전히 관계를 끊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뒤에 퇴계가 구암을 위로한 이 글을 남명이 보고는 불쾌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다.⁴³⁾

이 사건을 좀 더 따라가 보면, 남명은 하종악의 전처와 관련이 있었고, 구암은 하종악의 후처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종악의 전처는 남명의 형 曹粒의 딸로, 金勵에게 시집간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전처 소생인 딸이 家産을 차지하게끔 도와주기 위해 남명이 무욕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있었다.⁴⁴⁾

42) 李滉, 「答李剛而 庚午」, 『퇴계집』: …… 不俚口事, 人人傳說, 每不能無疑. 曹君有高世重名, 意謂其人必亭亭物表, 皎皎霞外, 天下萬物, 無足以撓其心者, 彼鄉里一婦失行與否, 是何等一塵穢事. 使斯人而遇說此事, 宜若洗耳而不聞, 乃爲之自貶損高節, 與人爭是非, 費盡心機, 至於積年, 而猶不知止, 誠所未曉. 然公不幸而遭此變, 亦不須分疏, 亦不須傷嘆, 亦不當以全交爲望. 惟當自反而牢定脚跟, 硬着脊梁, 仁禮存心. 而抱如舜之憂, 直義養氣, 而果如曾之勇, 超然若不聞其言, 灑然無相及其事, 邈焉爲不知也者而處之, 吾這裏眞樂, 自無窮矣, 他尙何爲哉. 不然, 若以全交爲念, 而有分疏求合之意, 則吾恐受屈滋深, 而終無可全之理也 ……

43) 閔仁伯, 「摭言」, 『苔泉集』.

44) 柳希春, 『미암일기초』제2책, 무진 7월 7일조: 前室의 딸인 金勵의 처 河氏가 丹城

하종악에게는 서누이(藥妹)가 있었는데 후처 이씨와 비록 적서 간의 구별은 있었을망정 울케 사이였고, 바로 구암 이정의 첩이 됨으로써 이씨와 구암 간에도 戚分이 있게 된 셈이다.⁴⁵⁾ 구암이 후처 이씨로부터 땅과 노비를 받았다고 남명이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후처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유희춘을 들 수 있는데, 옥사를 무마시키는데 큰 힘을 쓴 인물이다. 후처 이씨와 유희춘의 부인 宋德峯은 사촌 사이였다.

그렇다면 李希顔 후처 문제로 돌아가 남명과는 어떤 사이였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희안과 남명은 어머니 쪽으로 먼 친족이었고⁴⁶⁾ 이희안의 묘갈명을 지어 주기도 했다.⁴⁷⁾ 따라서 이희안과 하종악 후처의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서로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다. 결국 남명은 전혀 소생의 가산을 지키기 위해 무욕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샀고, 구암은 후처 이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남명의 「유두류록」에는 남명, 구암을 비롯해 이희안, 하종악 등 당사자들이 모두 등장한다. 그들은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입장에서 정도를 주장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에 살면서, 繼母를 해치고 家産을 몽땅 삼킬 꾀를 하여, 간음을 했다는 말을 지어 내 그의 4촌 大父인 曹植을 끈이 듣게 하여 都事 金逸駿에게 일러서 監司를 속이고 여러 번 소문이 났다는 것으로 公事를 꾸며냈다. (前室女金勵之妻河氏, 居于丹城, 謀欲害繼母而專吞家, 造成奸淫之說, 浸潤其四寸大父曹植, 使囑于都事金逸駿, 熒惑監司, 以屢聞爲公事.)

45) 정만조,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78면.

46) 李希顔은 호조참판을 지낸 李允儉과 통친 최씨의 2남3녀 중의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 최씨는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崔潤德(1376~1445)의 증 손녀이다. 또한 최윤덕은 남명의 어머니 인천이씨의 외조부이기도 하다 (조식, 「貞夫人崔氏墓表」, 『남명집』, 한길사, 2001, 296-299면; 정만조, 앞의 글).

47) 조식, 「軍資監判官李君墓碣」, 『남명집』

5. 절교의 후폭풍

남명과 구암은 표면적으로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으로 절교했다고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1600년 5월 『퇴계집』이 판각되어 나오고 퇴계가 남명을 비판한 내용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남명의 도학 정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남명뿐 아니라 남명 문인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남명의 문인 정인홍은 스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면 대응에 나섰고, 그의 글에 대해 퇴계 문인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절교는 이제 더이상 남명과 구암 두 사람 간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남명학과와 퇴계학파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명의 연보와 편년을 편찬할 때 음부옥과 절교 문제에서 가감과 삭제가 이루어졌다. 그 후 구암의 손자 李鯤變은 『疑訛拙辨』을, 남명의 손자 曹浚明은 『反李鯤變拙辨』을 지어서 각각 조부의 입장을 변호한다. 절교의 후폭풍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선생은 일찍이 이정 그리고 제자 몇 명과 함께 단속사에서 회합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때 이정이 사족 부인에게 음행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 일을 드러내어 죄를 다스리겠는가 라고 물었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사족 부인의 실행은 유사가 다스릴 일이고, 선비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겨를이 없는데 부인의 음행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일을 하겠는가 라고 하셨다. 애초에 선생은 河婦의 일을 발설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셨다. 황강 집안의 일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⁴⁸⁾

정인홍은 스승을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跋南冥集說」⁴⁹⁾과 「

48) 조식, 「與子強子精書」, 『남명집』: …… 先生嘗與李及士子若干人, 會于斷俗寺. 李問士族婦人有淫行, 士子可以發其事治其罪乎. 先生答曰, “士族婦人失行, 自有有司可治, 士子治已不暇, 治婦人淫行, 干已何事而敢爲之” 初非先生有意於發河婦事也. 特欲解黃江家事, 因以語及之耳. ……

高亢學問辨」에서는 남명의 처신과 출처에 대한 정당성을 해명했고, 「正脈高風辨」에서는 남명 학문의 도통성을 변론했다.⁵⁰⁾ 정인홍은 남명의 편지 뒤에 자신의 의견을 부기해 놓았다. 남명과 구암이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대목을 첨부해 놓음으로써 남명이 하종악 후처에 대해 고의적으로 獄事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구암이 이미 절교를 당한 후 편지 한 통을 선생에게 보내 사과하며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릴 때 각각 들은 것으로써 합니다. 제가 하씨 집안 중형제의 속임에 넘어가 이리저리 떠도는 말을 가볍게 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생과 저의 다른 생각을 다른 무리들에게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깊이 염려합니다. 앞 말의 실수가 실로 다른 사람들의 논의에 이른 것을 통렬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 선생이 구암과 절교한 일은 후학들이 자세히 알 바는 아니다. 이곤변의 졸변에 이르러서는 다소간 이야기의 험뜯음이 자못 심하다. 이노의 용사록에 실려 있기를, 김학봉이 오장에게 “곤변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었다. 오장이 말하기를 “사람됨이 바르지 못해 일가가 난감해 합니다. 만일에 뜻을 얻는다면 선한 사람들이 화를 당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곤변의 사람됨이 이와 같다면 비록 평소 옛사람을 평가하는 것에서도 바른 것을 얻기 힘들데 하물며 분한 마음을 갖고서 글을 거짓으로 꾸민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든가. 이러한 일을 보건대 반드시 분별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⁵¹⁾

49) 다른 말로는 「南冥先生與李龜巖絕交事」라 한다.

5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전병철, 「來庵 鄭仁弘의 南冥學 辯論과 道學的 正統性 규명」, 『남명학연구』68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20.

51) 无悶堂 草稿本 합천 碧寒亭 所藏 「남명선생연보」: ○ 龜岩既見絶後, 修一書以謝先生曰, “君子之是非人也, 各以所聞. 積爲河家從兄弟所囑, 輕發言議, 捫舌莫及. 不知者之以先生與愚生, 相異之議, 不可使聞於他輩. 尋常愧慮, 痛悔前言之失實以致人議

남명의 연보는 총 3종이 있다. 연보 편찬 과정에서 부인 관계, 내암 관련 문자 수록, 구암과의 절교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구암과의 절교 문제 역시 연보 편찬에서도 빠트리고 넘어갈 수 없었다. 林眞愷가 절교 문제를 상세히 기록해서는 안된다고 하자, 연보 작성을 맡은 朴綱은 이곤변이 줄변을 써서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방어의 차원에서 음부옥 관련 일을 소상히 적는 것이 필요하다 말했다.⁵²⁾ 그래서 결국 다음의 다섯 조목이 실렸다. 1. 음부옥의 개요. 2. 음부와 구암과의 관계, 구암과의 절교 이유. 3. 구암의 사과 편지. 4. 吳健의 절교 만류와 남명의 거부. 5. 무민당 박인의 생각.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중 '구암의 사과 편지'와 '무민당 박인의 생각'은 처음 접한 조목이다. 두 조목의 내용에 따르면, 절교를 당한 후 화해를 위해 구암이 남명에게 서신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구암은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며 주위 사람들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남명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또 구암의 손자 李鯤變의 『疑訛拙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곤변의 인격을 폄하해서 자료의 신빙성 자체를 훼손하려 했다. 『南冥先生編年』은 1897년 『남명선생전집』을 간행할 때 기존의 남명선생 연보가 소략하고 여러 오류가 있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 간행된 것이다. 구암과의 절교 문제는 편년에는 실리지 않았다.⁵³⁾ 음부옥과 절교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었기에 기록에 따라 가감하거나 삭제할 반복했음을 알 수 있다.

也” ○ 按先生之絕龜岩非後學所致知也。至於李鯤變拙辯中，有多少說話訾謗殊甚。李魯龍蛇錄載，金鶴峯問於吳長曰，“鯤變何如人？”長答曰，“爲人果險詭，一家所難堪。如使得志，善類殆矣云云”鯤變之爲人如此，則雖平心尙論，未必得其正，況挾以忿恨之心，而飾之於文字乎。觀此，必有卜之者。 논문에서 인용된 번역문들은 필자가 참고하여 가감하였다.

52) 이 일에 대해서는 林眞愷, 『與朴伯和』, 『林谷集』과 朴綱, 『答林樂翁』, 『无悶堂文集』 등에 상세히 나와 있다.

53) 다음 논문에 남명의 연보와 편년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강동욱, 『南冥의 年譜와 編年 考察』, 『남명학연구』44권,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2014.

6. 결론

단절과 끝을 의미하는 절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절교를 한 쌍방은 문집에서 서로와 관련된 글들을 삭제하기 때문에 절교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상대방에게 절교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낸 경우 확실한 물증이 존재하지만, 그것마저 생략했다면 절교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있었던 교분의 실재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남명과 구암의 절교는 그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상세히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아닌 퇴계를 포함한 삼자의 관계에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다. 남명과 구암은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상대의 집 근처에 집을 지어 여생을 함께 할 약속을 했을 만큼 돈독했다. 그러나 함께 지내온 시간이 관계를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구암과 퇴계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남명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30년 세월 만큼 서신 왕래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둘 사이에는 편지 한 통 남아 있지 않다.⁵⁴⁾

하종악 후처 음행 사건을 계기로 남명은 그간 구암에게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尹根壽의 『月汀漫筆』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절교 사건을 전해 들은 蘇齋가 ‘한 부인의 失行 때문에 친구가 절교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남명의 문인 柳宗智가 그 말을 다시 남명에게 전했다. 남명은 “소재는 전해 들리는 말만 들었을 뿐, 나의 본정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을 것이다.(蘇齋只聽傳聞之言, 不深知我之本情, 故有如是之言云)”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알려진 것처럼 하종악 후처 사건은 두 사람 절교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남명이 그간 구암에게 받아온 인간적인 상처와 실망으로 관계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4) 『졸변』: 惠五十餘年來, 交義益篤, 命駕相從, 殆無虛歲, 書簡之遞月亦累矣.

구암의 손자 李鯤變이 지은 『疑訛拙辨』과, 남명의 손자 曹浚明이 지은 『反李鯤變拙變』까지 논의를 확대하려 했지만 본고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서로 선대가 옳다는 논쟁을 지금에 와서 확인할 필요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사건은 있지만 진실은 사라지고 논란과 해석자의 판단만 남게 된다. 어떤 만남이든 동전의 양면처럼 헤어질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평생의 知己도 하룻밤 술자리의 실수나 실언으로도 관계가 끊길 수 있으니 절교의 사례에서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퇴계는 1570년, 구암은 1571년 남명은 1572년에 각각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도 끝이 났다. 절교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절교하지 않았다면, 구암이 남명과 퇴계학파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했었다면, 정인홍이 몰락하지 않고 남명학파가 퇴계학파와 대등하게 성장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봤을 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이 상상한 것처럼 풀렸다면 주자학 일색인 조선의 학문이 좀 더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확장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참고문헌

금장태, 『퇴계평전 - 인간의 길을 밝혀준 스승』, 지식과교양, 2012, 63면.

허권수,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을 하는가』, 한길사, 2001, 1~436면.

허권수, 『조선의 유학자, 남명』, 뜻있는 도서출판, 2022. 156~158면.

강동욱, 「南冥의 年譜와 編年 考察」, 『남명학연구』44권,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2014, 1~38면.

박동욱, 「조선시대 絶交의 사회학」, 『동방한문학』65권, 동방한문학회, 2015, 227~254면.

- 이숙인, 「소문과 권력 -16세기 한 사족 부인의 淫行 소문 재구성-, 『철학사상』4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67~107면.
- 장원철, 「南冥의 碑誌文字에 대한 한 小考 —李湛의 神道碑銘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제1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2, 33~61면.
- 장운수, 「退溪의 南冥觀 書信을 중심으로, 『퇴계학보』139권, 퇴계학연구원, 2016, 41~78면.
- 정만조,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한국학논총』2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80면.
- 전병철, 「來庵 鄭仁弘의 南冥學 辯論과 道學的 正統性 규명, 『남명학연구』 68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20, 375~400면.
- 최영성, 「退溪의 南冥 비판과 그 의미, 『퇴계학논집』8권,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63~102면.
- 황위주,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영남학』47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309~341면.

논문투고일: 2022.11.20. 심사완료일: 2022.12.16. 게재확정일: 2022.12.23.

Abstract

Meeting and breakup of Joseon scholars

- Focused on the cases of Lee Jeong and Jo Shik -

Pak, Dong-uk*

Breaking ties does not end with antagonism and separation between two people, but sometimes the frontline expands into a fight with the opposing camp. A case that shows this well is the breakup of relations between Namwu Choo-soo and Yangwu Lee-joo. It has been known that Nammyung and Guam had been dating for quite a long time through morality, but broke off their relationship due to the 'indecent affair with Ha Jong-ak's second wife'. Of course, it is true that this incident played a decisive role, but it cannot be said to be the only cause.

The severance of relations between Nammyeong and Guam can actually be seen as a matter of three parties, including Guam's teacher, Toegye, rather than a matter of both. Regardless of Toegye's intention, it is clear that h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eud between Nammyeong and Guam. This incident, which seemed to end with a simple severance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led to sniping and clarification between the disciples of Nammyeong and Toegye, and resulted in the descendants of the two families writing articles clarifying their positions. In the end, it became a decisive opportunity for the Nammyeong school and the Toegye school to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humanities

diverge, and they were divided into northerners and southerners, so it can be seen that one individual's breakup led to the divergence of intellectual history.

Toegye passed away in 1570, Guam in 1571, and Nammyeong in 1572, respectively, and the story of these three people came to an end. There is no point in arguing who is right or wrong in the issue of breaking up relations. However, if the two did not break off, if Guam served as a great bridge between Nammyeong and Toegye's school, and if Jeong In-hong did not fall and the Nammyeong school grew up on an equal footing with Toegye's school, it is inevitable to feel regret when imagining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If everything worked out as imagined, wouldn't it be possible for Joseon's studies, which were dominated by Neo-Confucianism, to expand into a more colorful spectrum?

Key words: breakup, Cho Shik, Lee Jeong, Lee Hwang, Nammyeong school, Toegye school, Ha Jong-ak's second wife